
한없이 여린 사랑

유준 · 문학 평론가, 서울예술대학 강사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살은 밀랍, 팔뚝은
자동 쇠파닥인 현대,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현대,
현대라는 이 모조 인형 앞에서,

무수한 화폐들과 깃발들 그 너머에서
어떤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먼, 너무도 먼, 너무도 멀어
맥이 닿지도 않는
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여린'을

- 최승자, 〈한없이 여린〉¹⁾

1) 최승자(2011), 《물 위에 찍어진》, 천년의 시각, 48.

요즘 누가 시를 읽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본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의아해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도대체’ 요즘 누가 시(라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를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다. 시를 읽고, 그것에 대해 비평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언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는지는 나 역시 명확히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지는 질문이기에,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상태로 답변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명확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질문은 항상 슬픔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애처롭고 슬프다.

가령 요즘 누가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가 ‘잘’, ‘많이’ 벌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그럼 돈벌이에 대한 질문과 시 읽기에 대한 질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의 대양이 펼쳐져 있는 것일까?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아 가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 가고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음에도 끝없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의 긍정성을 인정받고, 바로 그 긍정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할 것이다. 사치품의 역사가 상처받은 내면의 기록이라고 누군가가 적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처받은 존재들이 그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사치품이나 돈 같은 것들이 말이다. 시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도 크게 다르진 않으리라. 그들이 시를 읽으면서 하고 있는 말은, ‘나 여기 있어요!’인지도 모른다. 살아가면서 패고, 차이고, 덧난 존재들이 찾는 상비약 같은 거라고나 할까. 내면의 공허와 슬픔을 달래기 위해 한쪽은 백화점을 찾고, 한쪽은 서점을 찾는 차이가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 역시 존재하는데, 백화점을 찾는 자들이 강함의 동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외치려

한다면, 서점을 찾고 시집을 펼쳐 드는 자들, 누추한 불빛 아래서 여백 가득한 종이 위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자들은 약함의 영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지막이 긍정한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리라. 체제가 껌빡한 자들, 체제를 껌빡하고픈 자들의 성전 같은 것 아닐까, 시가 말이다. 시 쓰기와 시 읽기가 말이다.

시인, 연인, 광인을 한통속으로 묶은 것은 세익스피어였다. 500년 전의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한데, 그들은 체제의 요구로부터 두어 걸음쯤 비켜서 있다는 점에서도 한통속이다. 합리적 이해득실은 그들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공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공간을 가득 채운 자들의 공동체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 업신여김을 업신여김으로써 그들만의 윤리를 새로 쓴다.

세상은 늘 '폭염'이거나 '혹한'이다. 그것은 '화폐들' 때문이기도 하고, '깃발들' 때문이기도 하다. 즉 '한없이 션'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거느린 '한없이 션' 자들 때문이기도 하며, 그 구조의 세고 강함 때문이기도 하다. 션(강함)이 존중하는 것은 '더 션(강함)'이다. 그들은 여림(약함)의 주머니를 털어 더 강함에게 경배하며 헌화(獻貨)한다. 이 과정에서 여리고 약한 것들, 여리고 약한 자들, 여리고 약함의 시간들은 송두리째 무시된다. 그(것)들이 유용한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떠오를 때만 제외하고 말이다. 적자생존에서의 적자는 오로지 세고 강한 자라고 저들은 말한다. 약하고 여린 자는 도태되어야 하고, 도태되어야만 한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논리가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기 다시 적는 일은 사족이 될 터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편재(遍在)한다.

시를 쓰고, 시를 읽는 일, 그것은 이 편재에 균열을 내는 흐느낌일 수 있다. 시인이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라고 적을 때, 그는 이 흐느낌을 적고 있는 것이다. 폭염과 혹한이 열사(熱死)시키고 동사(凍死)시켜 버린 어떤

인간적 온화함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인간미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모조’의 세계, ‘밀랍’과 ‘쇠팔뚝’으로 무장한 채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비인간적 모조의 세계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들은 당연히 ‘모조 인형’ 같은 자들이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진짜 인간의 삶과 피를 갖고 있고, 인간의 웃음을 짓는 자들이 ‘모조’로 치부된다. ‘모조 인형’들이 ‘진짜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모조’라고 하며 하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화폐’와 ‘깃발들’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와 깃발의 공통점은 그 아래 사람들이 모인다는 데에 있다. 이 모임에서 강함은 추종되고, 약함은 축출되며, 집단의 열기 앞에서 개체의 온기는 식어 버리고 만다. 그런 점에서 화폐와 깃발은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너른 맥락에서 개인의 내밀한 인간적 가치의 보존을 허락하지 않는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의 체계들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이런 점에서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예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비개인성에 대한 복수”라고 한 말은 더없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치 권력의 전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흐리멍덩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식하되, 좀 더 너른 맥락에서의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을 통해 부를 획득하는 시스템은 타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들은 교환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고, 또 한쪽은 그 긍정적 가치까지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타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흔히 시장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 먹는 애덤 스미스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그는 《국부론》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도덕 감정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자는 한 번 쓰고 말았지만, 후자는 죽을 때까지 내내 수정, 증보를 거듭했다. 그는 부에 대한

승상이 지나치면 덕에 대한 존중을 앞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윤리가 손상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 즉 덕보다 부를 앞세우는 것이 《도덕 감정론》을 읽지 않고 《국부론》만을 읽은 자들의 오류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읽지 않은 자들의 오류이다. 애덤 스미스는 세상의 존경과 감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미덕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에 이르는 길’이다. 스미스가 이들 중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자는 시장을 호혜의 장소로 이해하고, 후자는 오로지 경쟁의 장소로만 이해한다. 세상이 폭염과 혹한으로 가득 차고 모조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미덕 대신 재산을, 호혜 대신 경쟁을 삶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부 대신 미덕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천성 속에는 명백히 이와 다른 몇 가지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바로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하는 감정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다.²⁾

연민과 동정심이야말로 스미스식 도덕 감정의 근원이다. 그것은 이기심을 제어하게 하고 타자를 발견하게 한다. 애덤 스미스에게 시장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부를 낳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시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소라는 점에 있었다. 우리는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

2) Smith, Adam(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Penguin Books, 13.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강탈이나 강탈에 가까운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동감과 호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이익의 무조건적 옹호라는 관점에서 스미스에 열광하는 자들이 스미스를 꼼꼼히 읽어 보기만 한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또 다른 오독을 통해 자신의 지원군을 찾아 나서든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묻자. 왜 ‘화폐’와 ‘깃발’인가? 왜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한없이 여린’을 찾는 화자와는 다르게 ‘한없이 센(강한)’을 찾아 헤매는가? 그것은 아마도 화폐와 깃발이 또 다른 화폐와 깃발을 낳는 마법을 발휘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축적된 화폐와 깃발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추구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없다. 주체가 소거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느끼는 외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외’조차 겪을 수 없는 소외의 극단인 것이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소외의 부재가 아니라 주체의 부재이다. 주체가 공백인 자리에 유령이 들어섰는데 주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들 느낄 수 있겠는가? 이 논리를 ‘한없이 여린’에 대입해 보면 화자가 찾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쩌면 홉스식의 만인 전쟁 사회에서 잃어버린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이데거가 ‘망각’이란 꼬리표를 붙이기 이전의 존재. 그리고 존재들, 이 존재들이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서로의 약함과 여림을 영접하는 어떤 시원. 그 시원(‘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적 존재, 그 존재들의 어깨동무. 화폐와 깃발 아래서가 아니라, 화폐도 깃발도 없는 적막한, 그러나 삭막하진 않은 그런 어떤 곳에서 나누는 온기, 서로 부딪는 어깨.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 일러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화폐를 상전으로 떠받들며 등가의 교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설파한 것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였다.

화폐는 성실함을 성실하지 않음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덕을 악덕으로, 악덕을 덕으로, 노예를 주인으로, 주인을 노예로, 우둔함을 총명함으로, 총명함을 우둔함으로 전환시킨다.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가치의 개념으로서 화폐는 만물을 혼란케 하고 전도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만물의 보편적 혼란이요 전도이며, 따라서 전도된 세계요, 모든 자연적·인간적 성질들의 혼용이요 전도이다.

용감함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비겁하다 해도 용감한 사람이다. 화폐는 특정한 성질, 특정한 사물, 특정한 인간적 본질력과 교환되지 않고 인간적·자연적·대상적 세계 전체와 교환되기 때문에, 화폐는 (그 소유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속성을 모든 속성과 (그 속성과 모순되는 속성과 대상까지도) 교환한다. 화폐는 불가능한 일들을 친숙한 것으로 만들며, 자신과 모순되는 것들에게 자신과 입 맞추도록 강요한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와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³⁾

인용문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사랑을 화폐와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의 문맥에 맞게 다시 옮겨 보면, ‘여립과 약함을 셈과 강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

상대가 약함을 내보여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아도르노)

시인이 같은 시집의 다른 시에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가

3) 칼 마르크스, 강유원 역(2009), 《1844년의 경제학 - 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180~181.

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면/그를 神이라 불러다오”(〈神할아버지가 말하길〉, 39)라고 적을 때, 그는 약함에 신성을 부여함으로써 아도르노식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그리하여 최승자의 〈한없이 여린〉을, 난 이렇게 다시 읽는다.

‘한 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
‘한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살은 밀랍, 팔뚝은
자동 쇠파퓌인 현대,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현대,
현대라는 이 모조 인형 앞에서,

무수한 화폐들과 깃발들 그 너머에서
어떤 ‘한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먼, 너무도 먼, 너무도 멀어
맥이 닿지도 않는
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여린 사랑’을